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10월 29일(금)
...(음력 9월 24일)...
Пятница
29 октября 2021г.
№ 41 (11958)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16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의 가을> 무술대회가 펼쳐졌다. (관련 기사 3면에 게재).

(이예식 기자 촬영)

극동연방관구 평의회 회의에서 제 6회 동방경제포럼의 결과 발표

러시아 연방 부총리이자 러시아 대통령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 유리 트루트네브의 주도로 극동연방관구 평의회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동방 경제 포럼 결과 발표가 다뤄졌다.

부총리가 다시 강조했듯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 및 세계 58개국에서 4,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3조 루블리가 넘는 380건의 협정이 체결됐다. 유리 트루트네브는 "이 모든 협정들을 이행하고 경제 발전, 극동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2021 동방경제포럼의 결과에 따라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61가지의 지시가 내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2022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이는 도시 혁신 마스터플랜 준비, 목재 가공 속도 가속화, 심토 지질 탐사 지원, 석유 및 가스 인프라 건설 지원 및 극동지역 건축 클러스터 개발 등을 위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방향 중 하나는 극동 도시들의 혁신이 시작되는 것이다. 첫 번째 마스터플랜은 제7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사업 논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사업 선정은 경쟁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게 부총리의 설명이다.

극동북극개발부 장관 알렉세이 체쿤코브가 지적했듯 대통령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주요 업무 영역은 경제의 우선 부문에 대한 국가 지원, 극동지역 투자 가치 증대, 항공을 포함한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향상하고 극동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극동연방관구의 교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극동지역 단일 항공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20개의 새로운 지역 간 노선에 대한 운항이 시작되었다. 극동 항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 예산으로 매년 59억 루블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또한 항공운송보조금 프로그램 규모를 늘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가스프롬 및 지역 업체들은 사할린 지역의 항공등유, 휘발유, 경유 생산을 위해 지난 9월 말 석유·가스산업 발전과 극동연방관구에 경쟁력 있는 모터연료 공급을 위한 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사할린에 원료 베이스의 실체화를 고려하여 가스 응축수로부터 액체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 여건이 보장되는 쿠릴열도 영토에 특별체제를

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또한 "단일 보조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이 계속될 것이다. 2022년 연방 예산과 2023년 및 2024년 계획 기간에 관한 연방법 초안은 2022년 예산 배정을 220억 루블리, 2023년에 170억 루블리, 2024년에 175억 루블리 규모로 책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약 570억 루블리이다.

또한 러시아의 바이칼 지역, 중국의 북동부 지역에서의 협력에 대해서는 낮은 인구밀도와 러시아 연방 구성 주체의 국경 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의료 단체 지원이 이루어진다. 의료 단체 자금 형성을 위한 특별 조치의 이행을 위해 "헬스케어"의 일환으로 국무원의 지침 초안이 극동 연방 관구에서 일부분이 개발되었다.

인구 유출을 막으며 극동연방관구의 인구를 늘리는 등의 다른 조치들도 논의되었는데, 현재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준비 중에 있다.

논의 결과 유리 트루트네브는 러시아 극동 발전부와 각 지역장들에게 제7차 동방경제포럼 프로그램 마련과 2022년 극동거리 전시 참가 준비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단신

노태우 한국 전 대통령 서거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 지난 26일 숨졌다.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온 노 전 대통령은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삶을 마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안으로는 국민통합, 밖으로 북방외교와 남북관계 개선을 기치로 내건 노 전 대통령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88 서울올림픽 개최, 옛 소련·중국과의 공식 수교 등 성과를 내며 외교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도 받는다.

사할린 선수 소피아 나디르쉬나, "러시아의 자랑"이 될 수 있다

사할린 주민들은 소피아 나디르쉬나가 "러시아의 자랑"이 되도록 도울 수 있다. 사할린 출신 스노보더 소피아 나디르쉬나는 2021년 국민체육육상 후보에 올랐다. 온라인 투표는 11월 2일까지 스포츠 상 웹사이트에서 계속될 것이다.

소피아 나디르쉬나는 세계적 선수이며, 사할린 지역과 러시아 연방 스노보더 국가 대표팀 멤버이다. 소피아의 스포츠 업적으로는 월드컵, 세계 챔피언 대회,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의 우승 등이 있으며 소피아의 스포츠 업적들은 국가적 재산이다. 국가 스포츠 시상식에서, 이 선수는 올해의 스포츠우먼 부문 "러시아의 자랑" 후보가 되었다. 인터넷 사이트 <https://sport-premia.ru/>를 통해 투표가 가능하다.

사할린주, 코로나19 상황

사할린 주 정부는 10월 27일 기준 COVID 통계를 발표했다.

현재 525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중 334명이 입원치료중에 있다.

사망자는 360명, 입원 가능한 자리는 242개이다. 일일 감염자는 88명이다.

총 186,657명이 백신접종을 받았다. 지난 27일 "스푸트니크 V" 610명, "에피와 크코로나" 118명, "스푸트니크 라이트"는 16명, 총 1248명이 접종했다.

외국인 일일 접종자는 48명, 총 접종자는 3,932명이다.

집단 면역 도달률은 57%이다.

일일 백신 재접종자는 796명이며 총 인원은 9,000명이다. 백신 재고는 55,060도즈분이다. 현재,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겪은 사람들 중 약 30,000명이 면역상태이다. 사할린 지역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86,079명의 주민들이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집단 면역 달성률이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사할린 주 보도부에서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현재 백신 접종률 49.7%.

새고려신문

2022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557루블리 04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한인사회계 소식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건강관리프로그램 진행

지난 18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건강관리프로그램 일환으로 사할린동포 1세 30명이 초대되어 내과, 심장과, 신경과 의사들의 검진을 받았다.

이들은 알츠하이머병 예방 세미나, 물리치료 프로그램에도 참가하고 주최측에서 정성껏 마련한 밥상을 만끽하면서 즐거운 공연 프로그램도 감상했다.

주최측(사할린주한인협회)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제한으로 인해 건강관리프로그램은 여러 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자택으로 방문하여 검진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할린 1세 동포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한국 보건복지부, 국제보건의료재단과 사할린주한인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사할린 청년한인회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의 대표단이 참석해 어르신들을 환영했다. 이들은 앞으로의 한인문화센터 내 노인정 설립과 의료상담실 운영 문제들을 현지 단체 및 기관들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운영위 회의 소집

지난 23일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주한인협회 운영위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에서는 박순옥 주한인협회 회장의 3분기 사업보고가 있었고 사할린한인문화센터 15주년 기념 행사 계획을 심의했다.

또한 회의에서 한국에서 제정된 사할린동포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사할린 한인>대상을 넓히는 데 대한 문제가 주요 토론을 이루었고 사망한 1세 부모의 자녀(2세)가 특별법 대상으로 영주귀국하도록 하는 안건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회의에서 이중국적(복수국적 제외) 문제도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비결>요리체험실 진행

지난 23일 한인문화센터에서 <어머니의 비결>요리체험실이 진행되었다. 이 체험실은 집에서 사용하는 옛날 레시피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는 사할린주 한인이산가족협회 박경춘 회장이 집에서 만드는 찰떡 레시피를 공유했다. 이 찰떡 맛을 본 사람들은 옛날 추억을 떠올리며 회상에 빠졌다. 행사 참가자 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되어 있었지만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이번 요리체험실은 한인문화센터 15주년 기념행사로 진행되었다. (본사 기자)



주지사, 사할린 주민들에게 전러시아 인구조사에 참여요청

작년에 실시되었어야 하는 전러시아인구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다가 지난 10월 15일에 시작되어 11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인구조사 대상자 본인의 직접적 참여뿐 아니라 국가서비스포털에서도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11년 만에 러시아 인구조사가 다시 실시되고 있다. 이 대규모 사업은 러시아의 미래와 각자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모두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구조사를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서비스 포털에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된다. 이 작업은 약 15분 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인구 조사 결과는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중요한 사회 프로그램의 시행, 도시와 마을 발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강조했다.

디지털화를 통해 인구조사 과정은 더 편리해졌다. 국가서비스포털에 등록된 러시아 주민 누구나 스스로 국가서비스포털을 통해 설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다기능센터의 게스트 컴퓨터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통계 수집원을 아파트에 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 조사장이 마련됐다.

물론 예년과 같이 세대별 방문조사 형식은 남아 있지만, 이번에는 통계수집원들이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해 조사한다. 통계 수집원들은 응답자를 방문할 때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특수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모든 자료가 응답자의 답변만으로 기록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통계수집원은 응답자에게 문서, 음성 기밀 정보(여권 정보, 월 수입)등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러시아에서는 이번 인구조사를 거부해도 어떠한 처벌도 없다.

인구조사는 세 가지 형태를 사용한다. 'L' 양식에는 주요 사항들이 있는데, 가족관계, 성별, 나이, 출생지, 결혼사항, 자녀, 국적, 언어능력, 교육, 취업상태, 생계수단, 이민사항등 2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L' 양식은 어린이아이를 포함하여 러시아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각 개인에 대해 작성된다.

주거 상황에 대한 정보는 인구조사 양식 "P"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임시 거주자의 경우 "B" 양식을 사용한다.

인구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러시아 직통전화 8-800-707-20-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할린주 콜센터도 설치되었다. 사할린 청소년 자원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이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답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모 저 모

사할린 댄서들, 스스로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 열려

'자신을 알려라' 아트 페스티벌의 '안무 예술' 부문에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었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청년이니셔티브센터가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의 접수기간은 11월 10일까지다.

참가자들은 11월 11일 예선전과 11월 20일 결승전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다. 경연 심사위원은 문화계 인사들, 예술계 종사자들, 전문 안무가들, 축제 파트너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댄서들의 결승전은 '로지나' 시문화회관 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자신을 알려라' 축제의 '안무 예술' 부문에는 아마추어와 프로 댄서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솔로 및 그룹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격은, 14세에서 35세까지의 나이로 제한을 두고 있다. 단체의 경우, 팀원 절반 이상이 14세에서 35세 사이여야 한다. 참가자들의 공연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올해 11회를 맞는 이 페스티벌의 수상자는 '솔로 공연', '듀엣', '팀 공연' 등 3개 부문에서 선정한다. 참가자들은 각각의 분야에 지원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을 위해서는 https://vk.com/app6013442_53958268?form_id=16#form_id=16로 접속하여 전자 양식을 작성하거나 설문지와 공연 시 필요 기술사항을 작성하여 e.malyushkina@yuzno-sakh.ru로 "예술축제"라고 표시하여 보내야 한다. 혹은 유즈노사할린스크, 네벨스카야 거리 31, 사무실 27 (청년 이니셔티브 센터)로 서류 형태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시행정부 프레스센터가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е танцоры могут заявить о себе

Начало сбора заявок на арт-фестиваль "Заяви о себе" в направлении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е искусство" объявляет центр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ампания продлится до 10 ноября.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ит преодолеть два этапа: отбо-

рочный тур 11 ноября и финал 20 ноября. Оценивать выступления конкурсантов будут члены жюри — деятели культуры, искусств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хореографы, партнеры фестиваля. Финальная битва танцоров состоится на сцене городского дома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К участию в арт-фестивале "Заяви о себе" по направлению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е искусство" приглашаются как любители, так и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ажное условие для конкурсантов — это возрастной ценз от 14 до 35 ле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могут как солисты, так и коллективы. В последнем случае не менее половины танцоров должны быть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35 лет.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выступления, которое готовят конкурсанты, не должна превышать 5 минут.

В этом году победителей среди танцоров 11-го арт-фестиваля определят в трёх номинациях: "Сольное исполнение", "Дуэт" и "Коллективное исполнение". Участники могут заявиться в каждой из них.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заполнить электронную форму по ссылке или заполнить анкету и технический райдер, выслать их на 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e.malyushkina@yuzhno-sakh.ru с пометкой "Арт-фестиваль", или эти документы можно принести в бумажном виде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ица Невельская, 31, кабинет 27 (МАУ "Центр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불법체류자" 작전 실시 후 이민자 9명 사할린에서 추방

사할린주에서 "불법체류자-2021"이라는 종합예방작전이 실시되었다.

이 기간 동안 적발된 러시아 연방 이민법 위반행위는 총 89건으로, 이 중 출입국·체류·통행규칙 위반행위가 83건, 외국인 노동 수혈절차 확립 위반행위가 6건이었다.

또한, 러시아 연방에서 9건의 행정 추방 결정이 내려졌는데, 앞서 1명은 이미 추방되었다고 주내무관리국 보도부에서 전했다.

9 이민igrants выдворят с Сахалина после операции "Нелегал"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едено комплексное оперативно-профилактичес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Нелегал-2021".

В указанный период времени выявлено 89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нарушений миграцион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Ф, из них 83 за нарушение правил въезда, выезда, пребывания и транзитного проезда, а 6 за нарушение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порядка осуществления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ностранными гражданами.

Кроме того, принято 9 решений 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выдворении за пределы РФ, исполнено одно ранее принятое решение о депортаци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УМВД.

사할린 주민들, 다큐멘터리 '우리 너머의 다리나' 시청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 감독 다리야 아기엔코의 다큐멘터리 영화 '우리 너머의 다리나'(12세 이상 관람가)의 비공개 상영회가 열렸다. 1시간 분량의 이 영화는 현지 작가가 사할린에서 촬영한 것으로, 주인공은 사할린 출신의 다리나 리슈스카야이다.

이 영화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탈출하기를 꿈꾸는 예술 감각이 뛰어난 다리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사랑과 인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현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부모님들은 그들의 큰 딸이 허황된 꿈만 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리나는 이런 상황에 신경쓰지 않는다. 다리나는 '우리 너머'에서 삶을 이어가며 특별한 아름다움과 소셜네트워크에서의 소통의 느낌으로 일상을 그린다.

이 영화의 감독은 전직 언론인이자 현재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인 사할린 주민 다리야 아기엔코이다. "우리 너머의 다리나"는 다리나가 수학한 모스크바 새 영화 학교(드미트리 쿠바소프의 감독의 다큐영화제작실)에서 수업의 일환으로 촬영되었다. '다리나'는 이미 모스크바의 "도커" 영화제와 페르미의 "플라에르티아나"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플라에르티아나"의 '학생 및 데뷔작'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비평가들은 감독의 미묘한 시선과 온화하지만 정직한 작가의 어조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상영 후에는 영화에 대한 Q&A 토론이 진행되어 사할린 사람들에게 '크라이 스웨타(세계의 끝)' 영화제를 떠올리게 했다. (8면에 계속)

제20기 민주평통 러시아동부협의회 출범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러시아동부협의회(협의회장 황돈연) 제20기 출범회의가 지난 10월 21일 블라디보스토크 메가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50여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임명장 수여식과 정기모임, 연간 계획서 작성을 진행했다.

러시아동부협의회 황돈연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이석형 수석부의장, 김점배 유럽중동 아프리카지역회의 부의장·고문희 총영사대리가 온라인으로 축하한 후 김경재 연해주한인회장·이철수 (모스크바)협의회장의 인사말씀이 이어졌다.

러시아동부협의회는 63명의 위원으로 사할린, 마가단, 이르쿠츠크, 튜멘, 옴스크, 연해주 각 지역의 위원들로 구성되었다고 전해졌다.

(본사 기자)



〈사할린의 가을〉무술대회 열려 남인도 국제당수도연맹 총재 참여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6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의 가을〉무술대회가 펼쳐졌다. 사할린한인문화센터 15주년 기념 첫 행사로 열린 이 대회에는 아무르주와 사할린의 크라스노고르스크, 첼호브, 홈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프 선수 12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태권도, 당수도, 합기도 경기에서 승부를 다투었고 멋진 시범도 보였다.

무술축제는 〈오스트로브〉무술센터(관장 안수학) 주최,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 협력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에서 초대된 남인도 국제당수도연맹 총재가 참가했다.

사할린방문시 남총재는 〈크리스탈〉스포츠회관에서 마스터클래스를 열고 학생들과 당수도 기술을 선보였다. 이날 남인도 총재는 안수학 사범에게 당수도 검은 띠 8단, 알렉세이 부토린 사범에게는 검은 띠 6단 수여증서를 전했다.

(취재: 이예식 기자)



미라클작전에서

사할린의 기적 작전을 꿈꾸다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

2021년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한국정부와 기관을 위해 일했던 아프간 특별기여자 398명을 피난, 구출하는 일명 미라클 작전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 뉴스를 보면서 웬지 국가의 품격과 지혜와 끈기와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을 느끼며 뿌듯했다. 1명을 구해낸 타국이나 아예 구출 작전을 포기한 서구 몇 선진국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공이자 국가 위상을 높이는 쾌거였다. 게다가 아프간인을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로 인정하고 숙소가 있는 충북 진천군 주민들은 환영의 현수막을 걸었고, 다른 지역 국민들은 진천군민을 돕기 위하여 진천군 농특산물을 엄청나게 구매하는 등 남을 돕는 사람을 돕는 선한 고리들이 이어졌다.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정을 주고 의리를 지키는 나라의 품격을 생각하니, 사할린 1세대분들이 떠올랐다. 고통이 가득했던 일본군국-제국주의 시대를 건너 서슬 퍼런 긴장으로 내내 이국땅에서 차별받으며 힘겹게 살았던 냉전의 시대 50여년 동안, 배 몇 척이라도 모국 정부가 보내주기만을 바라며 바다를 바라보던 한반도땅의 혈육 말이다. 2세대 자녀분들은 그 부모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부모의 나라는 왜 움직이지 않는가 분노하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했을 것이다. 게다가 1990년 9월 한국과 러시아 수교 이전에 부모를 잃은 2세대분들은, 좀처럼 기적이나 배려를 베풀지 않는 모국 정부에 깊은 절망과 실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러시아의 불가강 유역에는 독일계 러시아인들이 많이 산다고 한다. 이들은 스탈린 시대에 독일 스파이로 의심을 받고, 연해주 고려인들이 강제이주된 것처럼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사람들이다. 전후 독일정부는 독일계 러시아인 희망자들에게 모두 귀국을 허용했다. 독일어를 모르고 독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러시아로 복귀한 경우도 많았지만 어쨌든 모두 희망에 따라 모국의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서러움

이나 분노같은 감정은 없었다. 살 수 있는 공간이나 방법을 선택해 볼 기회라도 주어졌기 때문이다. 수 세대가 지나 모국어인 독일어도 모르는 동족을 받아들였던 전후 독일정부를 생각해 보면, 한국정부나 국민들의 무지와 무관심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드세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해방과 전란, 재건 과정에서 가난의 배고픔과 극한의 냉전 구도 하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한다. 그렇다 해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너무도 인색했던 건 감출 수 없다.

1996년 특별법을 통하여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출생한 사할린 한인들만 귀환과 정착을 허용, 지원했고, 2021년에는 귀환 생존해 계신 1세대의 자녀 1인 및 배우자에 한하여 귀환 및 정착을 허용했다. 1990년 이전에 돌아가신 1세대분과 자녀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었다. 일제 책임론과 냉전, 한일국교정상화와 배상 종료 논쟁, 한러 관계상의 외교적 역학 등 갖가지 요인들이 맞물려 책임을 넘기고 남의 탓하며 모국에 정착할 기회나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설령 선택의 기회를 가진다 해도 한인 동포들이 전원 한국행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사할린은 우리나라와 크게 상관없는 곳이 되어 버릴 것이고, 러시아로서도 인적 자원 유출이라는 손해를 감수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사할린에 둔 삶의 터전과 기회를 다 포기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선택의 기회는 주어져야 서운함이 남지 않을 것 아닌가.

나는 외교적, 정치적 식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도주의적, 도의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다. 잊혀지고 배려받지 못했던 부모세대의 고통을 보고 자란 한인동포들에게 이제 최소한 모국의 품격을 보여 줬으면 하는 것이다. 무엇이라도 좋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을 위해 무릎 쓰고 구출해 낸 기개와 슬기로움이라면 적어도 한인동포들이 진짜 무엇을 소망하는지 귀기울여 듣고 실행해 보는 미라클 작전이 국가의 품격을 위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제19차 세계한상대회 성황리 폐막

전 세계 45개 국 1,500여명이 참여한 제19차 세계한상대회 폐막, 2022년 울산에서 개최

총 기업 상담 건수 608건, 총1억 8,130만 달러 상담 실적 기록, 코로나19를 극복한 비즈니스 성과 선보여

지난 19일(화)부터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제19차 세계한상대회'가 3일간의 공식일정을 마치고 21일(목)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 세계 45개국 1,5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과 그린 뉴딜'을 주제로 변화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상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21일(목) 12시부터 진행된 폐회식은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장학금 전달식 △차기 개최지 홍보영상 상영 △한상기 전달식 △차기 개최지 대표인사 △폐회사 및 환

송만찬 등으로 공식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폐회식에서 제19차 세계한상대회 참가자 일동은 기업이 정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데 기여하며, 모국과의 경제협력 및 대한민국 경제영토 확장에 이바지할 것, 한인차세대가 지닌 가능성 실현 노력,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적극 협력, 재외동포 전담기구 재외동포처의 설치 촉구 등을 결의하였다.

김성곤 이사장은 "방역으로 참석이 어려운 가운데 뜨거운 열정으로 참여해주신 국내외 경제인 여러분 덕분에 금년도 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되어 기쁘다. 한상 네트워크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미래를 향해 나가는 한상 네트워크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또한 두드러졌다. 87개의 기업이 홍보부스를 선보인 현장 쇼룸과 더불어 총 176개 국내외 기업 및 한상바이어가 참여하여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을 비롯한 공공기관 상담, 유통바이어 상담, 한상바이어 및 한상셀러 상담 등 다각적인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총 기업 상담 608건, 총 상담금액 1억 8,130만 달러(21일 11시 기준)의 비즈니스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대회 기간 내 6개국 25개 한상기업에서 48명의 국내청년의 인턴 채용을 확정하였으며, 국내청년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온라인콘서트에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한상 인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езидент всемирной федерации тансудо провел мастер-класс на Сахалине

18 октября в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е "Кристал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мастер-класс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езидента всемирной федерации тансудо Нам Ин До.

Участниками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го занятия стали более 20 спортсменов — воспитанников отделения кикбоксинга спортшколы "Кристалл".

Нам Ин До имеет десятый дан по тансудо, десятый дан по тхэквондо, является профессором кафедры тхэквондо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Кеймён, а также имеет ученую степень доктора философии и физическому воспитанию в Коэн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Нам Ин До на Сахалине не впервые. Первый его визит на остров послужил началом установления продуктивны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всеми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тансудо и спортивными объединения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тех пор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ходит фестиваль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Кореи.

Свой визит мастер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начал со встречи с директором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Александром Коноваленко. Нам Ин До вручил книгу собственного сочинения об истории развития тансудо, результат труда многих лет исследований, сообщает "Кристалл".

Затем гость провел мастер-класс для молодых спортсменов. Сенсей рассказал спортсменам и тренерам о древнем боевом искусстве тансудо, которое является предком тхэквондо, а также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несколько базовых техник.

— На занятии я хочу донести ребятам основы тансудо. Это боевое искусств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оспитывает внутреннюю силу и внимание. Сегодня мы отрабатываем базовую технику: удары, движения. Здесь собрались неплохие боевые ребята. Я бывал во многих странах, видел как развиваются спортсмены, поэтому есть с чем сравнивать, — отметил Нам Ин До.

Корейский гость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чт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и участии тренеров по кикбоксингу Ан Сухаги и Алексея Буторина на Сахалине удастся провест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урнир по тансудо.

— В России очень мало мастеров такого уровня. Именно тансудо стоит у истоков большинства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Всегда хочется, чтобы такие люди с опытом мотивировали нас и спортсменов к занятиям и новым результатам. Стареемся развивать этот вид спорта на Сахалине, потому что все мы вышли из восточных единоборств и знаем, какое влияние оказывает этот спорт на физическое и духовное развитие, — рассказал тренер Алексей Буторин.

Наставник кикбоксеров "Кристалла" Ан Сухаги, который осуществлял роль переводчика Нам Ин До во время мастер-клас-



са,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тметил, что сейчас в мире возвращается интерес к истинным видам спорта. Поэтому роль тансудо сложно переоценить, ведь именно этот стиль стал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м для восточных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 Тансудо — боевой вид спорта. Человек должен уметь защищаться, потому что в жизни бывают разные моменты. Ведь сильный человек — это добрый человек, — резюмировал Ан Сухаги.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тренерам Ан Сухаги и Алексею Буторину вручили сертификаты о присвоении новых данов по тхэквондо. Так, теперь Ан Сухаги имеет восьмой дан, Алексей Буторин шестой дан.

Спортсмены живо повторяли движения за корейским мастером, многие наставления и рекомендации были понятны ребятам без перевода. Для некоторых участников занятия новый опыт пригодится уже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Например, Анастасия Меленкес,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тхэквондо шестой год, 20 октября отправится на чемпионат России в Москву.

— Нам нужен этот опыт, важно узнать новые приемы, техники. Ставлю перед собой задачу занять первое место в Москве, — поделилась спортсменка.

(пресс-служба Дворца спорта "Кристалл")

Новости диаспор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ходит программа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18 окт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рожденных до 15 августа 1945) прошла программа «Здоровье».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состоялось медицинск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кардиолог, невролог и терапевт), прошли семинар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болезни Альцгеймера, программа лечебной физкультуры, праздничный ужин,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а также были вручены небольшие подарки. В этот раз на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приглашено 30 пожилых людей.



Организаторы (РООСК) сообщили, что ввиду ограничений, связанных с COVID-19, мероприяти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несколько этапов. Приглашени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РООСК путем обзвон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ледующе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в ноябре.

Программа «Здоровье» проходит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Фонд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Региональной молодеж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роходит посещение на дому пожилых людей, которые по причине здоровья не 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оводимых в ККЦ.

О создании досугового центра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Сахалин посет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Фонд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В рамках делового визита они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проводимую совместно с РООСК программу п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А также провели рабочую группу по вопросам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программы, формирование досугового центра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и формирования медицинских кабинетов на баз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Состоялось правление РООСК

23 октября в актовом зал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ККЦ) г.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ло очередное заседание правления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а заседании обсудили текущие вопросы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в частности, президент Пак Сун Ок отчиталась о проделанной работе за квартал. Было отмечено, что с помощью соцсет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боте организации доводится до населения информативно и оперативно,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было акцентировано внимание на нескольких вопросах.

Активное обсуждение вызвал вопрос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несения поправок в части расширения определения понят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а также о возможности получения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двойн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а не втор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о возможности уехать на ПМЖ не только тем, у кого сейчас живы родители (1-ое поколение), но также и тем, чьи родители умерли, не дожидаясь принятия спец закона.

Также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е обсудили план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енных празднованию 15 летия ККЦ.

Секреты моей матери

23 октября в ККЦ, в рамках проведения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енных 15 летию центра,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первая встреча из цикла "Секреты моей матери".

Формат программы задумывался как воспоминание - возрождение кулинарных рецептов, которые ушли из нашей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Первыми гостями такой встречи стали члены правления РООСК, которые съехались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ахалина.

В теплой непринужденной обстановке гостям рассказали, показали и угостили традиционным блюдом, без которого не обходится ни одно праздничное корейское застолье - чальтток. В нынешнее время это лакомство из рисовой муки очень видоизменилось. Существует масса рецептов и видов, в приготовлении используются как традиционные, так и современные продукты. Современные производители смогли настолько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и форму и содержание блюда, что порою его жалко есть, настолько изящны эти произведения кулинарного искусства.

Но изюминкой нашего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а именно эта теплота воспоминаний о том блюде из детства, которые делали наши бабушки и мамы. Гости

живо включились и стали рассказывать, какие секреты приготовления они помнят, как это делали в их семьях. Словно ожившие фотографии, перед глазами гостей полились воспоминания из детства.

Главным проводником в мир кулинарного воспоминания стала всем нам известная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а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 Пак Ген Чун (Тамара Юнсомовна), в её руках рисовая мука и вода быстро обрели нужную консистенцию и вот уже тесто парится на водяной бане, и по прошествии заданного времени, горячее, пышущее тесто делится на кусочки и обваливается в сладкой гороховой пудре.

Незамысловатая форма, доступные ингредиенты и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воспоминаний из детства. Главный секрет рецепта этого "чальтток", блюда из детства, был раскрыт - тепло материнских рук и жив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о том времени, когда деревья были большими.

За чаем все гости отметили идею такого формата кулинарных встреч, посыпалось множество предложений, которые обязательно найдут продолжение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Пе Ен Хи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кончался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РК Ро Дэ У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РК Ро Дэ У скончался 26 октября в возрасте 88 лет. Как сообщили его помощники,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он находился в больнице, куда был помещён из-за ухудшения состояния здоровья. Ро Дэ У руководил страной с 1988 по 1993 год, став первым президентом, избранным на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выборах. Его правление ознаменовалось проведением в Сеуле лет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1988 года, а также установлением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РК с бывшим СССР в 1990 году и Китаем в 1992 году. В 1993 году по окончании пребывания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он был арестован по обвинению в коррупции, а позднее ему предъявили обвинение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змене за участие в подавлени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 Кванчжу в 1980 году. В августе 1996 года Ро Дэ У был осуждён на 22 года тюрьмы, позднее наказание смягчили до 17 лет. Он был амнистирован президентом Ким Дэ Чжун в конце 1997 года.

В Риме состоится выставка, посвящённая мирным усилиям Сеула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проведёт в Риме выставку, которая проинформирует мировое сообщество об усилиях Сеула по установлению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ыставка приурочена к визиту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э Ина в Рим для участия в саммите «Большой двадцатки» и встрече с Папой Римским Франциском. На выставке, которая откроется 29 октября в соборе Святого Игнатия и продлится две недели,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136 крестов, изготовленных из старых ограждений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ы, разделяющей две Кореи. Число 136 – это дважды по 68 лет, которые прошли после раскола страны в 1953 году в результате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завершившейся перемирием, а не мирным договором.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Ли Ин Ён, который будет сопровождать президента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выставки.

Президент РК встретился с кандидатом в президенты о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26 октября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стретился с кандидатом в президенты страны от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Чжэ Мёном. Встреча, которая продолжалась 50 минут, состоялась через 16 дней после того, как 10 октября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определила своего кандидата на пост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и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после его ухода в отставку с поста губернатор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Поздравив Ли Чжэ Мёна с выдвижением кандидатом в президенты о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звал его разработать актуальную политическую программу и вести честную предвыборную кампанию. Ли Чжэ Мён сказал, что он является членом «команды» действующего президента, тем самым призвав сторонников Мун Чжэ Ина голосовать за него на будущих выборах. Ожидается, что встреча с главой государства поможет кандидату о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укрепить свои позиции.

Оператор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КТ не оказывал услуги около часа

КТ, один из крупнейших операторов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в РК, извинился перед клиентами за неудобства, вызванные перебоями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услуг. Пользователи КТ по всей стране, начиная с 11 часов утра 25 октября, столкнулись с трудностями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ряда услуг, включая интернет, телефонную сеть и платёжные сервисы. В течение часа нормальную работу сервисов удалось восстановить, хотя в некоторы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для этого понадобилось больше времени. Первоначально компания заявила, что сбой вызван крупномасштабной распределённой атакой типа «отказ в обслуживании» (DDoS)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вредоносного кода. Под DDoS-атакой понимается ситуация, когда множество заражённых компьютеров пытаются связаться с другим компьютером, что приводит к превышению пропускной способности соединения и лишением доступа к серверу. Позднее оператор сообщил, что причиной сбоя в сети стала «ошибка маршрутиза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РК выпустило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третьего уровня. Внезапное отключение проводного и беспроводного доступа в интернет привело к сбою в работ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частных компаний, больниц, аптек, предприятий торговли 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пользующихся услугами компании КТ. Были приостановлены транзакции по банковским картам. Произошли сбои в работе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где пришлось приостановить занятия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Многие жители страны жаловались на то, что они не смогл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 QR-коды для входа в рестораны и магази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мпании КТ,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Корей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интернете проводят совместн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причин сбоя. 41% процент южнокорейцев пользуются услугами интернета, предоставляемыми компанией КТ.

(RKI)

«Тигр-волшебник, друг Чепоги»

Для твор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ГБУК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и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директор Ли Бюниль), Хай Ольгой Николаевной, главным научным сотрудником СОХМ, куратором выставки «Птицы парят в облаках... История коллекции» и педагогом доп образования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Анжелой Пе был разработан специальный проект «Тигр-волшебник, друг Чепоги».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екта стали воспитанники билингвальных групп детского сада "Мальвина". Ребята посетили выставку "Птицы парят в облаках... История коллекции". В экспозиции дети увидели коллекцию произведений живописи и графики современных мастеров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детский костюм, другие предметы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Но главным героем этой встречи для детей стал тигр. В игровой доступной форме экскурсия науч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музея Алевтины Александровны Мокроусовой по экспозиции превратилась в увлекатель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в мир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Неизгладимое впечатление произвела вышивка с изображением тигра, созданного из полудрагоценных камней, так живо представших перед детьми с музейных стен, словно замерших в прыжке. Мастерам очень реалистично удалось передать игру цвета и переливы шерсти животного на полотне.



Образ тигра был выбран не случайно. В корейском фольклоре он часто встречается. Этот персонаж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4-х божественных стражей 4-х сторон света. Тигра изображали на дверях дома, часто его можно видеть и в рисунках в народном стиле "минхва".

В продолжение темы дети посмотрели мультфильм из серии "Гора самоцветов" по мотивам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сказки "Чепоги", где одним из героев является тигр.

А в заключение, ребята отправились на мастер-класс, где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лавного науч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научной экспозиции отдела Алены Андреевны Астаповой сделали маску тигра.

Мероприятие вызвало живой интерес как у детей, так и у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х родителей. На очереди ещё несколько групп, желающих окунуться в волшебный мир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и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на этом не заканчивается, впереди н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главной аудиторией которых станут воспитанники детсадов и ученики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Пе Ен Хи

В РК готовится трёхэтапный план возвращения к обычной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27 октября состоялось третье заседание комитета по подготовке плана «жизни с COVID-19». В рамках поэтапного возвращения к обычной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было решено ослабить меры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для лиц, прошедших полную вакцинацию от COVID-19. Однако допуск в общественные здания и помещения с высоким риском заражения решено осуществлять по «паспорту вакцинированного» или свидетельству об отрицательных результатах ПЦР-теста. Ослабление мер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которое начнётся 1 ноября, решено проводить в три этапа. При выработке плана был учтён опыт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где отмена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привела к резкому росту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Было решено одновременно по всей стране снять ограничения на часы работы предприяти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и торговл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заведения, в том числе, бары и ночные клубы,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смогут работать до полуночи. Решение о полном снятии ограничений будет принято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эпиде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Пока не до конца согласованы такие вопросы как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личных встреч и перечень объектов, на которые будет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требование о предъявлении «паспорта вакцинированного» или свидетельства об отрицательных результатах ПЦР-теста. План поэтапног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обычной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будет объявлен 29 октября.

Приглашаем на курсы «Пишем вместе»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занятиях в группе «Пишем вместе».

На занятиях мы будем:

- развивать память
- вспоминать важные моменты собственной жизни
- писать об этом тексты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Занятия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по средам с 15-00 до 16-00. Цикл состоит из 7 занятий.

Первое занятие состоится 10 ноября в 15-00 в Центре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адресу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оспект Мира, 83-а (зд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С собой иметь ручки и тетради со съёмными листами.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е полугодие — **557 руб. 0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П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звал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Она стартовала 15 октября и продлится до 14 ноября 2021 года. В этом году ответить на вопросы можно не только переписчикам лично, но и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

– Спустя 11 лет в нашей стране снова проходит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Это масштабное событие во многом определяет будущее России, каждого из нас. И очень важно, чтобы мы с вами приняли в нем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первые сделать это можно в цифровом формате. Достаточно зайти на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 и ответить на несколько вопросов. Это займет около 15 минут вашего времени. При этом результаты переписи будут приносить пользу еще долгие годы. Опираясь на них, мы сможем принимать важные решения при реализации значимых соци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развитии городов и сел,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ереход в цифровой формат сделал процесс переписи более удобным. Любой житель России, имеющий подтвержденную учетную запись, може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ройти опрос на Госуслугах.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онлайн-переписи можно будет также в МФЦ на гостевых компьютерах. Организована работа специальных переписных участков, куда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люди, по разным причинам не желающие пускать переписчиков в свои квартиры.

Остается и традиционный обход по домам, но в этот раз в арсенале переписчиков будут планшетные компьютеры. Сотрудники должны носить специальную экипировку и удостоверение, действительное при предъявлении паспорта.

Внимание жителей обращают на то, что все данные записываются только со слов опрашиваемых. Переписчики не имеют права просить предъявить документы, озвучить конфиденциа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паспортные данные, сумму доходов). В России нет никаких наказаний за отказ от участия в опросе.

При переписи используются три формы бланков. Лист «Л» является основным и содержит 23 вопроса: о род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ях в семье, поле, возрасте, месте рождения, состоянии в браке, детях, гражданстве,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владении языками, образовании, занятости, источниках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миграции. Форма «Л» заполняется на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ющег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включая малолетних детей.

Сведения о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ях вносятся в переписной лист формы «П». А для опроса лиц, временно находящихся в стране, используется лист формы «В».

Получить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переписи можно по телефону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горячей линии: 8-800-707-20-20.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пустили также региональный колл-центр. Волонтеры Сахалинск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ресурсного центра готовы ответить на все ваши вопросы.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о народ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конкурса «Человек года – 2021»

За специальный приз борются восемь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среди которых педагоги,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и активисты, инициативные и неравнодушные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Проголосовать за них можно на сайте ежегодной преми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 Мы видим, что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 люди с активной жизненной позицией, которы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участвуют в развитии области. Они нашли себя в труде на благо общества. Реализуя свое призвание, они делают мир вокруг себя лучше, добрее. Выполняют важн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функции. Это работа с детьми, со старшим поколением, подготовка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участие в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азвитие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Каждый из претендентов достоин называться человеком года. Но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по победителю примут сами жители региона, – отметила Юлия Главинская, минист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финал конкурса «Человек года – 2021» вышли:

Наталья Русинова – журналистка, доброволец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талья занимается организацией досуга пожилых постояльцев в домах престарелых, придумала проекты «Ангелы с крепкими руками» и «Взрослая школа», уже более шести лет устраивает прогулки для парализованных людей. Является победителем конкурсов «Женщина года – 2019» в номинации «Лидер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Звезд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2019» в номинации «Доброволец», городского проекта «Успех года-2019» в номинации «Признание года», победителем в номинации «И невозможное возможно» фонда социальных инициатив «Энергия».

Евгения Тучкова – руководитель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ого отряда «Сова». Евгения посвятила свою жизнь подвижн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волонтерству. Только в этом году вместе со своим отрядом она помогла отыскать 105 пропавших человек.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Евгения уделяет разработке алгоритма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ри поиске людей, а также работе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дет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лександр Хохряков – военнослужащий. Уже семь лет он организует и проводит с детьми занятия по рукоделию из дерева. Работы юных мастеров участвуют в выставках в различ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а также на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и в Сахалинском краевед-

ческом музее. В будущем Александр планирует открыть свою мастерскую, чтобы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детей смогли приобщиться к работе с деревом и другими природ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Антон Ким – воспитатель группы продленного дня. Антон является организатором детского игрового чемпионата по стандартам WorldSkills Russia среди детей младшего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BabySkills»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школе №6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кже Антон занимает должность главн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ксперта по компетенции «Преподавание в младших классах — Юниоры».

Раиса Самборская – учител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школы №4 Корсакова. Раиса Ивановна – педагог с 28-летним стажем, постоянный член региональ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проверке ГИА и ЕГЭ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и литературе. Имеет звание «Заслуженный педагог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грудный знак «Почетный работник воспитания и просвещения».

Алексей Шве́ц –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базов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На своем посту Алексей Михайлович не только занимается подготовкой медицинских кадров для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 и вовлекает студентов в различные акции и социально-значимые мероприят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движение «Волонтеры-медик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Алексея Швеца будущие медработники участвуют в развитии движения «Серебряные волонтеры», в программе «Норма жизни», проекте «Младшая медицинская сестра – сестра милосердия», организуют профильные медклассы в лицее №1.

Виктория Мавлеткулова – педагог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етского сада «Матреш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иктория владеет двумя иностранными языками – английским и китайским. В рамках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ак педагог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на помогает детям в освоении незнакомого языка и раскрытии своих 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способностей. Является автором более десятка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статей, опубликованных в научных профильных изданиях, а также автором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модулей.

Ирина Ли – основатель и президент НКО «Сахалинский региональный Союз Туроператоров». Ирина является организатором приема туристических групп детей по национальному проекту «Культура»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развития детского туризма,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й по развитию внутреннего и въездного туризма. Туристическая компания «Би-томо», которую возглавляет Ирина Ли, за последние восемь лет обслужила более 70 тысяч круизных туристов и экскурсантов.

Народ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конкурса «Человек года – 2021» проводится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ежегодной преми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с 25 октября по 3 ноября. Победитель будет объявлен в ходе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премии.

Напомним, голосование по другим номинациям и подноминациям «Сахалинского маяка» уже завершено. В нем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более 41 тысячи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оздается Совет отц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убернатор предложил создать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общественную структуру, призванную укрепить семейные ценности и роль отца в воспитании детей. Идею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али сахалинские общественники, главы районов, депутаты, уполномоченный по правам ребенк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 этом году по реш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первые по всей России отметили День отца.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в нашей стране появился такой праздник. Это замечательный повод сказать спасибо нашим отцам и подчеркнуть их роль в обществе. Но, конечно же, внимание к вопросам семьи не должно ограничиваться одним днем. Поэтому я предлагаю создать Совет отц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н объединит самых активных пап региона и будет решать вопросы поддержки семьи, воспитания детей,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укреплению традиционных ценностей. Я лично готов возглавить этот совет. И приглашаю всех неравнодушны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его работе,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должен быть определен механизм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отц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часть членов будут назначены по представлению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Другую часть выберут сами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в ходе интернет-голосования.

В ряде российских субъектов уже успешно работают советы отцов. Например, в Москве активные папы проводят мероприятия в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руководят кружками и спортивными секциями,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в деятельности родительских комитетов школ, комиссий по делам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Отцы оказывают помощь семьям, попавшим в трудную жизненную ситуацию.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неполным и приемным семьям. Совет занимается профилактикой правонарушений и патриотическим воспитанием молодежи, помогает школьникам определиться с будущей профессией. Также члены Совета организуют курсы и лекции для будущих пап.

Напомним, 4 октября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дписал указ об учреждении нового праздника – Дня отца. Он будет ежегодно отмечаться в третье воскресенье октября. Однак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Дума приняла закон об учрежде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Дня отца, который празднуется в последнее воскресенье октябр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планируется сдвинуть на неделю, чтобы отмечать День отца вместе со всей Россией.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рассчитывают на сознательность жителей 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бизнеса при введении антиковидных ограничительных мер

В связи с ухудшающейся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ей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рекомендовано пройти добровольную вакцинацию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Работодателям рекомендуется предоставлять два выходных дня с сохранением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пройти вакцинацию.

С 30 октября по 7 ноября 2021 года включительн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водятся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время работы пред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организацией зрелищ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 оказывают услуг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Им запрещено работать с 24.00 до 6.00 часов. Также вводится запрет на курение кальянов в ресторанах, барах, кафе и и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Уровень коллективного иммунитета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сфер образования 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ЖКХ, транспорта и бытов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а также социальных служб предлагается поднять до 80 процентов. С этой целью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мерено создавать необходимые условия для удобной вакцинации в нерабочие дни, вплоть до 7 ноября.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старше 60 лет, а также тех, кто имеет хронические заболевания, но не сделал прививку и не переболел, призывают соблюдать режим самоизоляции на дому.

Ряд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ышел с инициативой о премировании жител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находящихся в зоне риска и желающих привиться. Люди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единовременную финансовую выплату в размере 1000 рублей. Правила получения этой суммы будут сообщены дополнительно.

Сейчас QR-коды для посещения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 в регионе вводить не намере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казалось идти по пути, который бы нанес существенный ущерб экономике и местному бизнесу.

Напомним, что в регионе сохраняется режим обязательного ношения масок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и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а также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блюдения социальной дистанции.

Губернатор проконтролировал готовность техники к зиме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ерил, как завод имени Федотова вступает в снежный сезон. На предприятии 120 единиц снегоуборочной техники. 160 человек отвечают за чистоту города.

– Первый снегопад стал проверкой для коммуналь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Впереди зима с метелями и циклонами, и готовиться нужно уже сейчас. Жители и гост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заметили, что город стал чище. Это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мы разработали стандарты, упорядочили процессы. Техника идет по дорогам в четкой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и. Насколько качественно сделана уборка, определяет компьютер. Если на улице осталась грязь, работа считается невыполненной и не оплачивается,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авод имени Федотова планирует сделать одним из образцовых предприятий по внедрению технологий бережли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преддверии холодного сезона здесь провели реконструкцию бокса, где обслуживается техника. Предприятие успешно применяет новые стандарты летнего и зимнего содержания дорог.

Разработаны требования по уборке тротуаров, автобусных карманов, прилотовых зон и мостов. По каждому виду работ определена очередность прохождения техники. Учитывается также работа, которая в ручную выполняется там, где машина пройти не может.

– Процессами управляют начальники участка и дорожные мастера. Люди выходят в 6 утра и готовят город к тому, чтобы южносахалинцы могли комфортно доехать или дойти на работу,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завода имени Федотова Алексей Римша.

На предприятии есть вся техника, которая необходима для качественного содержания дорог зимой. Маленькие погрузчики применяются на тротуарах. Роторы, самосвалы, грейдеры работают на проезжей части. Большие погрузчики эффективны на грунтовых дорогах. Комбинированные дорожные машины уже готовы к противогололедной обработке.

Отметим,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на содержание островных дорог выросло в шесть раз – 1,5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место 250 миллионов в 2020-ом.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провели масштабный ямочный ремонт. С предприятиями заключили трехлетние контракты на содержание дорог, что позволило им закупить технику.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홍범도 장군 78주기 추모식, 국립대전현충원서 거행

고국에 유해 봉환 후 첫 추모식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주관

봉오동·청산리 대첩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순국 제78주기 추모식이 10월 25일 오후 2시 30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이번 추모식은 홍 장군의 유해가 지난 광복절에 고국으로 돌아와 안장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추모식으로,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우원식)가 주관했다.

추모식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우원식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헌화·분향 ▲추모사 ▲대한독립군 유고문 낭독 ▲소설 '나는 홍범도'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추모사를 통해 "항일무장투쟁의 영웅이신 장군님께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앞으로도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분들의 뜻을 국민과 함께 계승·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귀환으로 독립전쟁 승리의 역사를堂堂히 후세에 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독립군 무명용사들과 함께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추모식 이후에는 '독립전쟁 청산리대첩 전승 제101주년 기념식'이 이어졌다. (재외동포신문)

러시아 한국문화원서 멋글씨 예술가 강병인 개인전

'모스크바, 한글 꽃이 피었습니다' 10월 1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개최 한글의 고움과 다양성, 독특한 조형성, 아름다움 전달

한글 멋글씨 예술가인 강병인 작가의 개인전 '모스크바, 한글 꽃이 피었습니다'가 10월 1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주러시아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2020-2021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와 제575돌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의 고움과 다양성, 독특한 조형성과 아름다움을 러시아에 선보여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강병인 작가는 1990년 말 이후 전통서예에 디자인을 접목해 한글 멋글씨(캘리그래피) 분야를 개척한 한국의 대표적인 멋글씨 예술가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강 작가의 작품세계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작품 48점을 선보인다.

땅에서 새싹이 돌아 자라며 가지가 되고 그 가지 위에는 활짝 피는 꽃을 표현한 '봄', 한글서예는 예쁘거나 반듯반듯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거친 획들을 통해 힘찬 기운을 표현한 '힘센 꽃', 금방이라도 달려나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물러고 하는 '개', 또오오오 하고 떨어지는 '똥', 들어오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나아가는 '얼쭉 좋다'에 이르기까지 한글에 들어있는 뜻과 소리를 형상화하는 것을 넘어 한글 제작원리가 주는 독특한 조형성을 살린 작품들이 전시된다.

특히 11월 중에는 강병인 작가가 러시아를 방문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한글 서예 특강 및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주러시아한국문화원은 러시아 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올해 초부터 한글 서예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1~2월 중에는 한글 서예 배우기 동영상 강좌 12편을 노어 자막을 넣어 제작·배포했고, 2~3월 중에는 강병인 작가 작품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와 함께 3월 중에는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글 서예 공모전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해 각지에서 251명이 495점을 출품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увеличили количество бюджетных мест в Сахалинск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олледже

В этом году за парты сели 200 первокурсников, еще 75 ребят поступили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филиал. Это на 50 студентов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колледже губернатор встретился с будущими медиками, а также посетил аккредитационную площадку и аудиторию, оборудованную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тандартам WorldSkills.

— Спасибо, что выбрали самую благородную профессию на Земле, — обратился к студентам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Мы хотим, чтобы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жили дольше. Для этого оснащаем больницы и поликлиники по последнему слову техники, строим сельские ФАПы, развиваем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ую медицину. Но важнее всего — специалисты. Вопросу подготовки и привлечения медицинских кадров мы уделяем самое пристальное внимание. Ждем на работу выпускников нашего колледжа, готовых проявлять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внимательное и береж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пациентам.

Сахалинский колледж — кузница кадров средне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звена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годн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учатся 980 студентов. В колледже готовят фельдшеров, медицинских сестер и братьев, лабораторных техников. Проводятся курсы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для младшего медперсонала. Во многом благодаря выпускникам укомплектованность в среднем звене сегодня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95 процентов.

С 2018 года медколледж участвует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движении WorldSkills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 учебном заведении оборудовали аудиторию, где студенты отрабатывают навыки по компетенции «Медицинский и социальный уход».

— Есть две зоны. Одна имитирует условия стационара, другая — дома. Ребята учатся оценивать состояние пациента, применять ходунки и другие средства реабилитации. В домашней зоне есть импровизированная кухня и гостиная. Пациентам нередко требуется помощь в повседневных делах — приготовить еду, помыть посуду, застегнуть пуговицы. Студенты отрабатывают разные жизненные ситуации. Как поесть, если сильный тремор? Как расчесать волосы, если руки негибаются? — пояснил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Наталья Ким.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право работать в медицине, все выпускники подтверждают свои знания на аккредитационной площадке. Это специальная аудитория, где студент за 20 минут должен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основные навыки.

— Мы делаем искусственное дыхание, измеряем давление, берем кровь на анализ. Сейчас мы на манекене отрабатываем процедуру электрокардиографии, — поделилась студентка Яна Ржевская.

Аудитория оснащена камерами. В соседнем кабинете комиссия — не из числа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лледжа — оценивает правильность действий будущих фельдше-

ров и медсестер.

Во время посещения колледжа губернатор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качественная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должна быть доступна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этого ведется работа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кадров, прежде всего, в поликлиники. В эт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начали работать более 150 докторов.

60 семей в Невельске отметят новоселье в но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На улице Школьной в портовом городе готовят к сдаче пятиэтажный дом. Новостройку возвели в рамках област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сселения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месте с будущими жильцами квартиры осмотре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региона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должны жить в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ях. Это наша приоритетная задача. Мы стремительно продвигаемся в ее решении. И продолжаем наращивать темп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чтобы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людей смогли улучшить свои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Как и при сдаче других домов в регионе будущие жильцы этих квартир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осмотрели их несколько раз. Это правило введен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Два раза в месяц организуются встречи жителей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минстроя, район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компании-застройщика. Вместе они могут высказать замечания по качеству отделочных работ. К следующей встрече подрядчик обязан их устранить. При этом на каждое жилое помещение действует гарантийный срок 5 лет.

— Мы приходили несколько раз. Я задавала вопросы застройщику по поводу электрики. Сообщили, что все выполняется по стандартам. Сейчас вижу фина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мне все нравится. И вообще, квартира очень светлая и уютная. Отделка выполнена застройщиком, так что можно сразу заносить мебель и жить, — рассказала многодетная мама Елена Кузнецова, которая въедет в новые квадратные метры с семьей.

Отмети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в России выполнила программу расселения жилья, признанного аварийным до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Федеральный центр поддержал инициативу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о включени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новую программу, рассчитанную на расселение фонда, призванного непригодным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до 1 января 2021 года. В ближайшую пятилетку ключи от комфортных квартир получат почти 29 тысяч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5,8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тметят новоселье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опросы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ы и переселения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для нас приоритетны

Губернатор ответил на вопросы и обсудил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на встрече с жителями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е могу попасть на прием к терапевту, прихожу, талонов нет, — сообщил пожилой мужчина из зала.

По словам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Долинской ЦРБ Валерия Шарыкина, в районе не хватает двух врачей-терапевтов. Однако пациенты всегда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в кабинет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 Проблема нехватки врачей актуальна для всего региона. Сегодня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доукомплектовать штат на 90 специалистов. Ставим задачу сделать это до конца года. Сохранение здоровь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приоритет в нашей работе.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мы ввели программу глубок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организма для жителей старше 65 лет.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ланируем активно предлагать обследоваться мужчинам старше 55 лет, которые тоже в группе риска. В регионе работает уже более десятка центров обследования, оборудования достаточно, поэтому ждем,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ряду с медицинской одной из самых обсуждаемых на встрече стала тема переселения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Несколько человек в зале по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конкретными сроками по их адресам.

По словам мэра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Александра Тугарева, из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к вводу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 этом году семи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два дома в селе Сосновка уже построены и введены, остальные пять планируют ввести до 15 декабр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новые квартиры переедут 168 семей. В районе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ют механизм переселения граждан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ыплатой выкупной стоимости за изымаемые жилые помещения. В этом году деньги перевели 16 семьям, еще по 28 семьям подготовлены документы. С 2022 по 2024 годы 100 квартир будут сданы в селе Стародубское. Продолжается работа с земельными участками в Долинске. Один из них на улице Хабаровской уже предоставлен застройщику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рех пятиэтажных жилых домов общей площадью 7,5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 Я не так давно переехал с материка. Живу здесь со своей семьей, работаю на предприятии. Нам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и Сахалин, и Долинск. Но так как пока не могу приобрести свое жилье, хотелось бы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арендным. Будет ли такое строиться в нашем городе, — поинтересовался мужчина.

— Очень хороший вопрос и главное своевременный. Вы знаете,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в стране справилась с программой расселения жилфонда, признанного непригодным до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Сейчас мы первыми в стране реализуем новую программу. Вместе с тем арендное жилье тоже нужно продолжать строить. Долинск обязательно внесем в план,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убернатор поручил мэру заранее предусмотреть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п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영화의 감독 다리야 아기엔코와 주인공 다리나 리슈스카야와의 질의응답은 거의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고 주최 측에서 전했다.

Сахалинцы увидели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Дарина в Зазеркаль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ёл закрытый показ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Дарьи Агиенко "Дарина в Зазеркалье" (12+). Часовая картина была снята на острове местным автором, а её главной героиней стала сахалинка Дарина Лисовская.

Фильм рассказывает об артистичной Дарине, которая мечтает вырваться из провинции в столицу. Она ждёт любви и признания, а пока безуспешно ищет работу. Родители считают, что их взрослая дочь витает в облаках. Но Дарина не обращает на это внимания. Островитянка раскрашивает будни особенным ощущением прекрасного и общением в соцсетях, продолжая жить в созданном ею Зазеркалье.

Автор картины — островитянка Дарья Агиенко, бывший журналист, а ныне режиссер-документалист. "Дарина в Зазеркалье" была снята в рамках учёбы в Московской школе нового кино в мастерской неигрового кино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Дмитрия Кубасова. "Дарину" уже видели зрители в Москве на фестивале "Докер" и в Перми на фестивале "Флаэртиана", где картина взяла гран-при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студенческий и де-

бютный фильм". Критики отмечают тонкую оптику режиссёрского взгляда и нежную, но честную авторскую интонацию.

После показа состоялось обсуждение фильма в формате Q&A, напомнившее сахалинцам о "Крае света". Сессия вопросов и ответов с режиссёром картины Дарьей Агиенко и главной героиней — Дариной Лисовской длилась почти час, сообщ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каза.

장애물 경주로 땀 흘린 사할린 주민들

트로이츠코예 마을의 스키 베이스에서 스포츠 경기 OCR Outdoor 3.0 형식의 장애물 경기가 열렸다. 행사 주최자에 따르면, 이 장애물 경기는 힘, 속도, 조정력 그리고 지구력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대회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째 날에는 선수들의 개인전이 펼쳐졌다. 두 번째 날에는 팀 단위로 장애물 코스에서 경기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핸드 바, 장벽, 타이어 기울이기, 균형 통과 및 조정, 지구력, 힘과 손재주를 위한 다른 훈련들과 같은 장애물이 준비된 코스를 극복해야 했다. 선수들은 이 모든 코스를 250미터 거리 달리기와 결합해 진행했다. 가장 빠른 시간에 모든 과제를 완료한 참가자가 우승자가 되었다.

결승에 오른 모든 참가자들은 독특한 메달을 받았다.

아니와 행정부는 대회 조직위원 "장애 경기 연맹"의 지역 지부장 알렉산드르 곱과 알렉산드르 아르투케비츠에게 감사장을 전했다. 이 프로젝트는 장애물 경주의 대중화와 대중 스포츠

츠 개발, 사할린주 주민들의 체육, 건강한 생활습관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아니와 시행부에서 보도했다.

Гонка с препятствиями заставила попотеть сахалинце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лыжной базы села Троицкое прошло спортив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Pride Race — забеги с препятствиями в формате OCR Outdoor 3.0. По слова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мероприятия, это проверка на силу, скорость, координацию и выносливость.

Состязания проходили в течение двух дней. В первый спортсмены выступали в личном зачете. Во второй — на полосу с препятствиями выходили командами.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яло преодолеть дистанцию с препятствиями,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и рукоходы, барьеры, кантование шины, прохождение баланса и другие дисциплины на координацию, выносливость, силу и ловкость. Все это спортсмены совмещали с бегом интервалами по 250 метров.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участники, выполнившие все задания за лучшее время.

Все участники на финише получили уникальную медаль финишер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Анивы выражает благодарность организатор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 руководителя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Федерации спортивных забегов с препятствиями" Александру Квак и Александру Артюкевич. Проект направлен на популяризацию гонок с препятствиями, развитие массового спорта и пропаганду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у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общает мэрия Анивы.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АХКОМ ЕДА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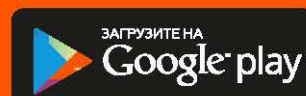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